

국내 중앙 일간지 환경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안종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A Study on Accuracy of Environmental Reporting in Korean Major Dailies

Jong-ju Ah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Generally, inaccurate reports on environmental issues occur due to various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way to enhance accuracy of environmental reporting. So the reporters' career and college major had been compared to the accuracy of their articles. The by-lined environmental articles in nine dailies published in 1991 were check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accuracy rate in environmental articles was 54.2%. Inaccuracies appeared 1.7 times per an article, while the average frequency of inaccuracies in overall articles was 0.9 time.

(2) Errors in the articles consist of 65.8% of subjective inaccuracies and 34.2% of objective inaccuracies. They derive from the false usage of terminology(15.8%), misquotation(14.5%), incorrect statistics(13%), exaggeration(13%), inaccurate title(7.9%), and false comparison(5%).

(3) Inaccuracy rate by the type of articles was 66.7% in columns, 60% in feature stories, 54.5% in-depth stories, 40.9% in straight news, respectively.

(4) Inaccuracy rate by the specific field was shown 71.4% in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52.5% in water pollution, 37.5% in waste management, and 35.7% in air pollution.

(5) According to the result of chi-square test analysi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inaccuracy rate and of subjective, and objective inaccuracies relevant to the period of reporters' career covering environmental reporting and the nature of articles, and college major.

Keywords : inaccuracy, subjective inaccuracy, objective inaccuracy, error

I. 서론

뉴스 보도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 만약 독자로부터 기사의 정확성을 의심받게 되면 신문에 대한 신뢰성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오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의 경우,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지미의 세계' (1980년), 독일 슈테른의 '히틀러 일기장 사건' (1983년), 일본 아사히신문의 '산호취재사건' 등이

꼽히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함안 바둑이 주인 구출 사건' (1982년), '김일성 피격 사망사건' (1986년) 등이 대형 오보 사례로 꼽히고 있다.¹⁾

이런 대형 오보는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나 독자에게 널리 알려지지만 사소한 오보나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짤막한 고침 기사를 내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어서 오히려 독자들에게 더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환경 의식이 높아가고 있고 일간 신문에서 환경보도의 양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1991년 낙동강 폐놀 오염 사건 보도 등에서

*Corresponding author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

Tel : 02-710-0114, Fax : 02-710-0134
E-mail : jjahn@hani.co.kr.

보듯이 한국 언론은 책임성이 결여된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부정확한 보도를 종종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임신부들이 수돗물 속에 들어간 극미량의 페놀이 태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에 인공임신 중절수술로 뱃속의 태아를 지우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런 부정확한 보도의 발생원인은 크게 언론산업 본래의 속성에서 비롯한 부분과 정보의 수집·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임병국은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오보의 원인으로 마감시간과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을 꼽았고 정보의 수집·전달과정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취재기자의 잘못, 편집기자의 잘못, 전달과정의 기술적 잘못 등 언론사 내부적 요인과 권력의 간섭, 잘못된 보도자료나 발표, 취재원의 고의 등 언론사의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²⁾

오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도 깊이 따지고 들면 언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속성에만 얽매어 충분한 취재와 검토를 게을리한다든가, 특종 의식 때문에 사건의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채 앞질러 추측보도를 일삼는다든가, 주위의 분위기에 휩싸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류를 범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오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오보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한 Greenberg와 Tannenbaum은 기자가 자신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보에 접하게 될 때 오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³⁾ Berry는 뉴스원이 준 정보를 기자가 잘못 인용한 것이 오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⁴⁾ Singletary 등은 오보 발생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오보는 주로 속보(39.8%) 때문이거나 부주의(34.0%) 때문이며 기자의 훈련 부족(14.6%), 기자의 태도, 부당한 선임견 등도 그 이유로 꼽았다.⁵⁾ 이밖에 Lawrence와 Grey는 기자의 배경정보 부족, 데스크의 편집관행, 기자의 과대 강조 욕구, 뉴스원과 접촉 부족, 기자의 부주의, 시간적 제약 등 6가지를 오보 발생원인으로 들었다.⁶⁾

한편 한국언론연구원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오보의 원인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1989년) '기자의 부주의'(41.0%)를 으뜸으로 꼽았고 이어 '매체간의 지나친 경쟁'(20.4%), '기자의 전문성 결여'(15.2%), '뉴스원측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12.6%) 순으로 나타났다.⁷⁾ 외국에서의 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실증적 검증은 1936년 미국의 Charnley가 1천개의 기사를, 그 기사에 인용된 사람 또는 취재원에게 우송하여 정

확성을 평가하도록 한 뒤 분석한 것이 효시라고 하겠다.⁸⁾ 그 뒤 Brown은 1965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오클라호마 주간지의 기사 정확도를 분석했다.⁹⁾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신문기사의 정확도 조사는 특정 분야로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Tankard와 Ryan은 과학기사의 정확도를 검증했으며¹⁰⁾ Pulford는 과학기사와 일반기사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서 과학기사가 일반기사보다 더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¹¹⁾

한국에서는 보도 정확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1984년 한국언론연구원이 중앙 6개 일간지에 실렸던 기사들 가운데서 284건의 기사를 골라 취재원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해당 기사의 정확도를 조사했다.¹²⁾ 임병국은 국내 4개 일간지를 조간, 석간 각 2개씩으로 나눠 조간(79.8%)이 석간(21.0%)보다 3.7배나 높은 오보율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 최윤희는 과학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 국내 전문보도 분야에서의 오보에 관한 첫 연구로 자리매김했다.¹³⁾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 보도의 정확성 또는 오보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문보도 분야 가운데 과학보도 등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이 다른 보도 분야에 견주어 많이 필요한 환경보도 분야에서의 기사 정확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자의 특성과 기사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환경보도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중앙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9개지)의 환경담당 기사가 기명기사로 보도한 1991년 1년간의 환경 관련 기사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환경담당 기자의 이름을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종합정보은행>에 넣어 검색한 결과 76건의 기명기사가 나왔으며 여기에 매주 고정적인 환경면을 꾸리는 신문이 보도한 26건의 기명 기사를 추가해 모두 102건의 기사를 확보했다. 이 기사 가운데 외국인 인터뷰 기사 등 취재원과의 접촉이 어려운 사례 10건을 빼 92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했다.

1993년 3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이들 환경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환경부 각과의 과장 또는 담

당 계장에게 조사 대상 기사와 함께 부정확 기사 분석표를 나눠줘 오류의 정도를 평가토록 한 뒤 회수했다. 회수된 건수는 92개 가운데 83개로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부정확 기사 분석표는 1984년 한국언론연구원이 사용한 것을 토대로 해 일부 내용을 약간 변형해 사용했으며 분석표 양식은 부록에 나와 있다.

2. 자료 분석

조사대상으로 삼은 83건의 환경 기사의 특성이 환경 보도의 정확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기사 분야, 기사 성격, 기자의 환경 분야 담당 기간, 기자의 대학(또는 대학원) 전공의 환경 분야 관련 여부 등 모두 4개의 기사 및 기자 특성을 정했다.

기사분야는 환경부의 행정조직을 토대로 대기·수질·폐기물·환경평가·기타(환경기술·소음·진동 등) 등 5개로, 기사 성격에 따른 분류는 기획·해설·칼럼·스트레이트 기사 등 4개로, 출입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미만, 3년 이상 등 4단계로 각각 나누었으며 환경관련 전공은, 전공, 비전공의 2종류로 분류했다.

총 83건의 정확도 조사내용을 기사 및 기자의 특성 별로 분석했으며 기사의 정확도 내용과 기사·기자의 특성과의 상관관계 검증 때의 통계적인 유의도 수준은 $\alpha=0.05$ 로 잡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전체의 정확도

총 83건의 조사대상기사중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정확한 기사는 38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해 정확도는 45.8%로 분석됐다. 조사대상기사중 전체 오류수는 76개로 조사대상기사 1건당 오류수는 0.9개이며 부정확기사 1건당 오류수는 1.7개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Berry 연구결과인 정확도 46.3%, Marshall의 연구결과인 정확도 46.5%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언론연구원의 1984년 연구결과인 60.6%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정재춘의 91년 환경기사 정확성 연구결과인 정확도 5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표 1).

2. 부정확 기사의 유형별 오류

본 연구는 한국언론연구원이 '신문보도의 정확성' 연구 때 사용한 부정확기사의 유형 분류 방법을 거의 그대로 이용해 취재원들에게 주는 기사오류 분석 설문에 사용했다.

한국언론연구원은 객관적 부정확을 11가지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소와 주소를 하나로 묶고 인물묘사를 뺏으며 대신 비교잘못을 추가해 10가지로 나누었다. 주관적인 부정확 내용은 그대로 사용했다. 객관적인 부정확은 (1)이름 (2)나이 (3)주소(주소) (4)숫자(통계) (5)용어 (6)직위 (7)시간(날짜)

Table 1. Comparison of the inaccuracy rate between Korean newspapers and U.S. newspapers' articles

| 연구자 (기관) | 내용 | 연구 년도 | 연구대상 | 조사대상 기사수 | 부정확 기사수 | 부정확 비율(%) | 기사당 평균오류 개수 |
|-------------|----|----------|-------------------------|-------------|------------|--------------|-------------------|
| Charnley | | 1936 | 3개 대도시신문 | 591 | 272 | 46.0 | 0.8 |
| Berry | | 1967 | 2개 대도시신문 1개 소도시신문 | 270 | 145 | 53.7 | 1.5 |
| Marshall | | 1974 | 2개 지방지 | 267 | 142 | 53.3 | 1.1 |
| 언론연구원 | | 1984 | 6개 일간지 | 284 | 112 | 39.4 | 0.7 |
| 최윤희 | | 1990 | 9개 일간지, 2개 경제지, 과학기사 | 101 | 71 | 70.3 | 1.5 |
| 정재춘 | | 1991 | 4개 일간지 환경기사 | 200 | 88 | 44.0 | - |
| 안중주 | | 1993 | 9개 일간지 환경기사 | 83 | 45 | 53.2 | 0.9 |

(8)인용잘못 (9)비교잘못 (10)기타 등 10가지이며 주관적인 부정확은 (1)부정확한 제목 (2)과대표현 (3)과소표현 (4)생략 (5)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총 오류수 76개 중 객관적 부정확이 50개 (65.8%)였고 주관적 부정확이 26개 (34.2%)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용어의 잘못이 1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인용잘못 14.5%, 숫자·통계수치 오류가 13.0%,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뜻하는 객관적 부정확 기사가 11.8%, 부정확한 제목 7.9%, 비교잘못 6.6% 등의 순이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객관적 부정확이 주관적 부정확보다 많은 것은 서로 일치하나 객관적 부정확 비율이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부정확한 제목이 1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인용잘못, 틀린 철자법이 각 10.9%, 생략 10.4%, 통계숫자 9.9%, 과대표현 9.4%로 나타났는데 유형분류가 서로 다른데다 언론연구원의 조사대상 기사에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많아 두 연구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기사 성격별 기사 부정확도

기사 성격별 부정확 비율을 분석한 결과 칼럼기사가 66.7%로 가장 부정확했고 그 다음 기획기사 60.0%, 해설기사 54.5%, 스트레이트 기사 40.9% 순이었다(표 2).

기사 1건당 평균 오류수는 기획·스트레이트 기사가 각 1개였으며 칼럼기사가 0.8개, 해설기사 0.7개로 분석됐다. 부정확기사 1건당 오류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획기사 1.7개, 칼럼 1.2개 순이었다.

4. 기사 분야별 부정확도

환경기술·소음·진동·환경교육부문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의 기사부정확 비율이 1백%로 나타났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자연생태계·지구환경문제를 한데 묶은 환경평가 분야가 71.45%의 부정확률을 보였다. 또 수질 분야는 52.2%, 폐기물 분야는 37.5%, 대기분야는 35.7%의 부정확률을 각각 나타냈다(표 3).

기타 분야의 부정확 비율이 높은 것은 기자들이 잘 취급하지 않는 분야라는 특성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기사 1건당 오류수는 환경평가, 기타 분야가 각 1.6개, 대기 분야와 수질 분야가 각 0.8개, 폐기물 분야가 0.4개로 분석됐다.

5. 기자의 환경 담당 기간별 기사 부정확도

담당 기간의 구분은 6개월 미만(7명), 6개월~1년 미만(6명), 1년~3년 미만(2명), 3년 이상(1명) 등 4 등급으로 나뉘었다.

담당기간별 부정확 비율은 1년~3년 미만이 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6개월 미만 70.0%, 6개월~1년 미만 50.0%, 3년 이상 45.0%로 분석됐다. 기사 1건당 오류수는 1~3년 미만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개월 미만 1.1개, 3년 이상 0.9개, 6개월~1년 미만 0.8개로 나타났다(표 4).

6. 기자의 환경 관련 전공 여부별 기사 부정확도

환경 관련 분야를 전공한 기자는 2명(화학공학, 환경공학)이었으며 나머지 14명은 문과계통 출신이었다. 환경 전공 기자의 부정확 비율은 53.1%로 비전공 기자의 55.9%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다. 기사 1건당 오류수는 두 집단 모두 0.9개로 같았다(표 5).

Table 2. Inaccuracy rate according to article type

| 내용 기사 성격 | 기사수 (A) | 부정확 기사수(B) | 부정확비율 (%)(B/A) | 오 류 수 | | | 부정확 기사당 오류수 | 기사당 오류수 |
|----------------|------------|---------------|-------------------|-------|-----|----|-------------------|------------|
| | | | | 객관적 | 주관적 | 계 | | |
| 기획 | 30 | 18 | 60.0 | 20 | 11 | 31 | 1.7 | 1.0 |
| 해설 | 22 | 12 | 54.5 | 13 | 3 | 16 | 1.3 | 0.7 |
| 칼럼 | 3 | 6 | 66.7 | 4 | 3 | 7 | 1.2 | 0.8 |
| 스트레이트 | 22 | 9 | 40.9 | 13 | 9 | 22 | 2.4 | 1.0 |
| 계 | 83 | 45 | 222.1 | 50 | 26 | 76 | 1.7 | 0.9 |

Table 3. Inaccuracy rate according to the specific field of articles

| 내용 기사 분야 | 기사수 (A) | 부정확 기사수(B) | 부정확비율 (%)(B/A) | 오 류 수 | | | 부정확 기사당 오류수 | 기사당 오류수 |
|----------------|------------|---------------|-------------------|-------|-----|----|-------------------|------------|
| | | | | 객관적 | 주관적 | 계 | | |
| 대 기 | 14 | 5 | 35.7 | 6 | 5 | 11 | 2.2 | 0.8 |
| 수 질 | 46 | 24 | 52.2 | 25 | 13 | 38 | 1.6 | 0.8 |
| 폐기물 | 8 | 3 | 37.5 | 2 | 1 | 3 | 1.0 | 0.4 |
| 환경평가 | 7 | 5 | 71.4 | 9 | 2 | 11 | 2.2 | 1.6 |
| 기 타 | 8 | 8 | 100.0 | 8 | 5 | 13 | 1.6 | 1.6 |
| 계 | 83 | 45 | 54.2 | 50 | 26 | 76 | 1.7 | 0.9 |

Table 4. Inaccuracy rate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reporter's career covering environmental reporting

| 내용 담당 기간 | 기사수(A) | 부정확 기사수(B) | 부정확비율 (%)(B/A) | 오 류 수 | | | 부정확 기사당 오류수 | 기사당 오류수 |
|----------------|--------|---------------|-------------------|-------|-----|----|-------------------|------------|
| | | | | 객관적 | 주관적 | 계 | | |
| 6개월미만 | 10 | 7 | 70.0 | 6 | 5 | 11 | 1.6 | 1.1 |
| 6개월~ 1년미만 | 22 | 11 | 50.0 | 14 | 4 | 18 | 1.6 | 0.8 |
| 1년~ 3년미만 | 9 | 8 | 89.0 | 7 | 4 | 11 | 1.4 | 1.2 |
| 3년이상 | 42 | 19 | 45.0 | 23 | 13 | 36 | 1.9 | 0.9 |
| 계 | 83 | 45 | 54.2 | 50 | 26 | 76 | 1.7 | 0.9 |

Table 5. Inaccuracy rate according to reporter's environmental major or nonmajor

| 내용 전공 여부 | 기사수(A) | 부정확기사 건수(B) | 부정확비율 (%)(B/A) | 오 류 수 | | | 부정확 기사당 오류수 | 기사당 오류수 |
|----------------|--------|----------------|-------------------|-------|-----|----|-------------------|------------|
| | | | | 객관적 | 주관적 | 계 | | |
| 환경전공 | 49 | 26 | 53.1 | 29 | 17 | 46 | 1.8 | 0.9 |
| 비전공 | 34 | 19 | 55.9 | 21 | 9 | 30 | 1.6 | 0.9 |
| 계 | 83 | 45 | 54.2 | 50 | 26 | 76 | 1.7 | 0.9 |

7. 기사 및 기자 특성별 오류 내용과의 상관관계

기사의 성격, 다시 말해 기획기사, 칼럼기사, 해설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와 객·주관적 부정확도와의 상관관계를 chi-square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6).

또 기사 분야, 즉 대기·수질·폐기물·환경평가·기타 등에 따른 객·주관적 부정확 오류내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가 없었다($\alpha=0.05$)(표 7).

기자의 환경 전공 여부와 객·주관적 부정확도와의 상관관계, 기자의 환경보도 담당기간과 객·주관적 부정확도와의 상관관계를 역시 chi-square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8, 표 9).

Table 6. Correlation between inaccuracy type and article type

| 기사성격 | 오 류 내 용 | |
|-------|---------|---------|
| | 객관적 부정확 | 주관적 부정확 |
| 기 획 | 20 | 11 |
| 해 설 | 13 | 3 |
| 칼 럼 | 4 | 3 |
| 스트레이트 | 13 | 9 |

$$X^2 = 2.392692 \text{ d.f.} = 3 \text{ p}>0.05$$

Table 7. Correlation between inaccuracy type and the specific field of articles

| 기사 분야 | 오 류 내 용 | |
|-------|---------|---------|
| | 객관적 부정확 | 주관적 부정확 |
| 대 기 | 6 | 5 |
| 수 질 | 25 | 13 |
| 폐기물 | 2 | 1 |
| 조정평가 | 9 | 2 |
| 기 타 | 8 | 5 |

$$X^2 = 1.978972 \text{ d.f.} = 4 \text{ p}>0.05$$

Table 8. Correlation between inaccuracy type and reporter's environment major

| 환경전공여부 | 오 류 내 용 | |
|--------|---------|---------|
| | 객관적 부정확 | 주관적 부정확 |
| 전 공 | 29 | 17 |
| 비전공 | 21 | 9 |

$$X^2 = 0.1425 \text{ d.f.} = 1 \text{ p}>0.05$$

Table 9. Correlation between inaccuracy type and the period of the reporter's career covering environmental reporting

| 담당기간 | 오 류 내 용 | |
|---------|---------|---------|
| | 객관적 부정확 | 주관적 부정확 |
| 6개월미만 | 6 | 5 |
| 6개월~1년 | 14 | 4 |
| 1년~3년미만 | 7 | 4 |
| 3년이상 | 23 | 13 |

$$X^2 = 1.8438 \text{ d.f.} = 3 \text{ p}>0.05$$

8. 기사 및 기자 특성별 기사 정확성과의 상관관계
 chi-square 검증으로 기자의 환경 전공 여부, 담당
 기간, 기사 분야, 기사 성격과 기사의 정확성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alpha=0.05$ 수준에서 상관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1, 표 12, 표 13).

담당 기간의 경우 Spearman의 순위상관 분석을
 통해 기사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를 다시 분석한 결과
 담당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른 정확성과의 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표 11).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the accuracy of articles and repoter's environment major

| 환경전공여부 | 기사의 정확성 | |
|--------|---------|---------|
| | 정확한 기사 | 부정확한 기사 |
| 전 공 | 23 | 26 |
| 비전공 | 15 | 19 |

$X^2 = 0.0009$ d.f. = 1 $p>0.05$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the accuracy of articles and the period of reporter's career covering environmental reporting

| 담당기간 | 기사의 정확성 | |
|--------|---------|---------|
| | 정확한 기사 | 부정확한 기사 |
| 6개월미만 | 3 | 7 |
| 6개월~1년 | 11 | 11 |
| 1년~3년 | 1 | 8 |
| 3년이상 | 23 | 19 |

$X^2 = 6.884$ d.f. = 3 $p>0.05$

$|r_s| = 0.4$ (기준 $|r_s| \geq 0.8$)

r_s :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the accuracy of articles and specific field of articles

| 기사분야 | 기사의 정확성 | |
|------|---------|---------|
| | 정확한 기사 | 부정확한 기사 |
| 대 기 | 9 | 5 |
| 수 질 | 22 | 24 |
| 폐기물 | 5 | 3 |
| 환경평가 | 2 | 5 |
| 기 타 | 0 | 8 |

$X^2 = 3.744$ d.f. = 4 $p>0.05$

Table 13. Correlation between the accuracy of articles and article type

| 기사 성격 | 기사의 정확성 | |
|-------|---------|---------|
| | 정확한 기사 | 부정확한 기사 |
| 기 획 | 12 | 18 |
| 해 설 | 10 | 12 |
| 칼 럼 | 3 | 6 |
| 스트레이트 | 13 | 9 |

IV. 결 론

전문보도 영역에 속하는 환경보도의 부정확한 내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기사의 부정확한 내용과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특성, 즉 대학에서의 환경관련 전공 여부와 환경보도 담당기간의 길고 짧음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환경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9개 중앙일간지의 환경담당 기자가 91년 1년간 기명으로 보도한 환경 기사를 취재원이거나 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부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부정확한 내용을 검토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분석했다.

1. 환경기사의 부정확도는 54.2%로 분석됐다. 부정확한 기사 1건당 부정확 개소는 1.7개이며 1건당 부정확 개소는 0.9개로 나타났다.

2. 부정확 기사의 오류를 내용별로 보면 객관적 부정확이 65.8%였고, 주관적 부정확은 34.2%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용어 사용의 잘못이 15.8%로 으뜸이었고 그 다음 인용잘못 (14.5%), 숫자·통계, 과대 표현(각 13.0%), 부정확한 제목(7.9%), 비교잘못(5%) 순으로 나타났다.

3. 기사의 성격별 부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칼럼이 66.7%였고 기획기사 60.0%, 해설기사 54.5%, 스트레이트 기사 40.9%로 나타났다.

4. 기사 분야별 부정확도는 소음·진동·환경기술·환경교육 분야 등을 포함하는 기타가 100%였으며 그 다음 환경평가 분야가 71.4%, 수질 분야 52.2%, 폐기물 분야 37.5%, 대기 분야 35.7% 순이었다.

5. 기자의 환경 분야 담당기간과 대학 환경 관련 전공 여부, 기사성격, 기사 분야 등에 따른 기사의 부정확도와 객·주관적인 부정확 내용을 chi-square 검증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기자의 대학 전공과 환경 기사의 부정확성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 분야 보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맡아왔느냐도 기사의 부정확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환경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자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언론사 내부의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기사 점검과 오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윤리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차배근 : 오보의 발생원인과 정정의 책임, 신문과 방송. 제223호, 한국언론연구원, 4-18, 1989.
- 2) 임병국 : 한국 일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14, 1991.
- 3) Greenberg, B. S. and Tannenbaum, P. H. : Communicator Performance under Cognitive Stress. Journalism Quarterly, Spring, 169-178, 1962.
- 4) Berry, F.c., Jr. : A Study of Accuracy in Local News Stories of the thre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Vol.3, 482-490, 1967.
- 5) Singletary M. W. : How Editors view Accuracy in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Winter, 786-789, 1977.
- 6) Lawrence, G. C. and Grey, D. R. : Subjective Inaccuracies in Local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Winter, 753-757, 1964.
- 7) 신문과 방송. 11, 7-8, 1989.
- 8) Chamley, M. : Preliminary Notes on a Study of Newspaper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13, 394-401, 1936.

- 9) Brown, C. A. : Majority of Readers give Newspapers for accuracy. Editor & Publisher, Feb, 1965.
- 10) Tankard, J. W. et al. : News Source Perceptions of Accuracy of Science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51, 219-224, 1977.
- 11) Pulford, D. L. : Follow-up Study of Newspaper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53, 119-121, 1976.
- 12) 한국언론연구원 : 신문보도의 정확성. 1-65, 1984.
- 13) 최윤희 : 보건커뮤니케이션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신문연구 통권 제54호, 관훈클럽, 1992.

부 록

부정확 기사(오보) 사례표

* 기사 1건 당 1장을 사용하십시오.
 #오른쪽 상단에 기사의 일련번호를 적으십시오.

| | | | |
|---------------|--|--------|--|
| 신문명 (기자이름) | | 제 목 | |
|---------------|--|--------|--|

* 부정확한 내용을 기사 내용 바로 밑부분에 줄을 쳐 표시하고 자세한 내용을
 아래 양식에 기록하십시오.

| A. 객관적 부정확 | | B. 주관적 부정확 | |
|------------|-----------|------------|---|
| 1. 이름 | 2. 나이 | 1. 부정확한 제목 | |
| 3. 주소 | 4. 숫자(통계) | 2. 과대 표현 | |
| 5. 용어 | 6. 직위 | 3. 과소표현 | |
| 7. 시간(날짜) | 8. 인용잘못 | 4. 생략 | |
| 9. 비교 잘못 | 10. 기타 | 5. 기타 | |
| 오 | 정 | 오 | 정 |
| | | | |

예) 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1.5ppm으로 1급수에
 \$

| | |
|---------------|-------------|
| 오 | 정 |
|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